24~25이사람-8 1904.1.6 7:19 PM 페이지25

전북지역건설업계최초로해외건설공사수주

이근재 새한건설(주) 회장

"글로벌 시대는 변화를 즐기는 자들의 무대입니다"

건설 기업의 생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극심한 수주난과 업체 수 증가에 따른 수익률 악화로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무언가 변화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방의 한 중견 업체가 해외에서 잇따라 공사를 수주해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서울의 1군 건설업체들만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2군 종합건설업체인 전북 지역의 새한건설. 이 회사는 지난 3월 몽골 정부에서 발주한 에르데넷 불간 운트까지 142㎞에 이르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였다. 터키 등 외국 5개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낙찰률 87%에 따낸 것이다. 낙찰 금액은 미화 1,9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억원 정도이다. 대형 업체의 해외 공사 수주 금액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1년에 공사 1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한 지역 건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이근재 회장은 "외환 위기의 시련을 겪으면서 2000년부터 눈을 해외시장으로 돌리고 국제 시장의 틈새를 노리며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피와 땀으로 가꿔왔는데 4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싹을 틔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는 전북 업체를 알아주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전북 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설업체로 평가하였고, 이것이 눈을 해외로 돌린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하였다.

새한건설의 해외 진출 역사는 몽골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한건설은 지난 6월 초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종합개발사업 국제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 공사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미화 1,400만 달러 규모로 총 1만 3,700㏊의 광활한 초지에 향후 2년 동안 경지정리와 함께 용수로, 배수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이근재 회장은 이 사업을 맡아서 끝내게 되면 국내 건설업체 중 새한건설이 농업 토목 부문에서는 최대 실적을 갖게 된다고 자랑하였다.

이근재 회장은 몽골 등 중앙아시아 시장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다. 그는 올해 몽골에서 수백 억원대 건설 공사가 최소 5건 이상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 지원 형식으로 초이르 자밍우드 간 도로 건설(830억원), 운트 무릉 흡수호골 간 도로 건설(500억원) 등 굵직한 공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은행 결제 조건의 차관 공사를 중심으로 향후 몽골 지역 내 공사 발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관 공사인 만큼 계약 이행 보증에 대한 정부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공사 수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근재 회장의 마음은 중국 서북부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내륙의 광활한 땅을 달리고 있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의욕만 앞서 고배를 마신 중국 서북부 대개발 사업 참여에 대한 꿈도 접지 않았다. 특히,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주목하고 있다. 전후 복구 사업에 따른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를 위한 발판이다." 이들 지역에는 주로 개도국 업체들이 경쟁 대상이라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글로벌 시대는 변화를 즐기는 자들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전북과 한국 내에서만 즐기기에는 너무 비좁아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전의 철저한 준비와 도전 정신만 있다면 중앙아시아 건설 현장의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